孤雲會報

2011년 봄호

발행처 : (社)孤雲國際交流事業會 발행인 : 崔根德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65-1 월드오피스텔 301호 (우)110-350 (TEL) 738-3477, 732-8118 (FAX) 732-8119

新 年 辭

學術行事와 孤雲紀念館 마련에 주력하겠다

崔時仲〈慶州崔氏中央宗親會長〉

庚寅年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辛卯年 새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유수와 같습니다.종친 여러분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시며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종친 여러분들께서는 대과 없이 지내시고 성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고운국제교류사업회도 고운총서 2,3집 발간, 중국 양주시에서의 시조님 제향행사, 시조님 메달 보급, 기금 모금 등 제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종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운사업회 최근덕 이사장님 및 최염 종친회 명예회장님 제위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1년 경주최씨중앙종친회와 고운사업회는 고운 시조님의 학문연구 및 문화유적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올 해 10월 국제학술대회와 시조님 제향행사를 준비하고 특히 고운기념관 마련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종친 여러분! 辛卯年 새해.

올 한 해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화합 · 단결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을 지키고 고운 시조님의 후손으로 부끄럽지 않는 면모를 갖추어 나갑시다. 경주최씨중앙종친회와 사단법인 고운국제교류사업회의 발전을 위하여 和合 團結하고 相扶相助의 정신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화합 단결 하지 못하고 분열하면 망하고, 화합 · 단결하면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고 흥하는 것을 고금을 통하여 많이 배워왔습니다. 또한 종친 상호간에 긍휼히 여기고 상부상조 한다면 우리 종친은 무한히 발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2011년도 새해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종친 여러분 가정에 다시 한 번 건강과 번영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慶州崔氏中央宗親會와 (社)孤雲國際交流事業會 定期總會
중앙종친회 및 고운사업회 사무실 개소, 국제행사 논의

예결산안, 사업계획 만장일치 통과

▷경주최씨중앙종친회와 (사)고운국제교류사업회 정기총회 기념사진.

경주최씨중앙종친회(이하 중앙종친회)와 (사)고운국제교류사업회(이하 고운사업회)는 지난 4월7일 성균관 유림회관 3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예결산안과 주요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회에는 전국에서 140여명의 종친들이 참석했다. 최시중 경주최씨중앙종친회 회장과 최근덕 (사)고운국제교류사업회 이사장 주재로 1부 중앙종친회 총회, 2부 고운국제교류사업회 총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중앙종친회 총회는 최수인 총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문창후 고운 시조님 영령에 대한 묵념, 최시중 회장의 개회사, 최근덕 이사장의 축사, 의안 토의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시중 회장은 개회사에서 "훌륭하신 시조님을 받들고 종친 간에 서로 화목 단결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종친회가 발전해 왔다"며 종친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종친들을 격려했다. 최근덕 이사장은 "무려 55년 동안 여러 회장들께서 어렵게 종친회를 이끌어 오시다가 최시중 종친회 회장과, 최염 종친회 명예회장 그리고 여러 종친들의 기금 출연으로 드디어 종친회와 고운사업회가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사무실 개소를 축하했다.

의안토의는 ▶중앙종친회 연혁보고 ▶세입 세출 결산보고 ▶최병도 감사의 감사 보고 ▶임원회비 및 성금 납부내역 ▶개정회칙 보고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현돌 부산종친회 회장과 최효석 경남종친회 회장, 최현호 충북종친회 회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이어 최근덕 이사장의 주재로 진행된 고운사업회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2011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이 있었다. 이날 승인된 2011년도 사업계획은 ▶고운총서 제4집 간행 ▶한 · 중 · 일 고운사상 국제학술회의 및 명시 연묵전 개최 ▶중국 양주시 기념행사 개최 ▶고운회보 발간 ▶ 경주최씨 명현 문집국역 간행사업 추진 ▶달력 제작 배포 ▶사무실 구입 계획과 이에 수반하는 필요 예산 등이었다. 사무실 구입 계획에 관해 최염 명예회장이 사무실의 위치와 가격, 주위환경을 상세히 설명하자 참석한 회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고운총서(孤雲叢書) 4집은 오는 9월 중에 고운의 문학을 중심으로 편집될 계획이다. 고운사상 국제학술대회 및 명시연묵전(名詩硯墨展)은 오는 10월13일에 북경대학교 및 중국 양주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경대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는 장일규(한국고대사 전공), 조범환(서강대, 한국고대사 전공), 하마다(큐슈대, 한국사 전공), 시즈나가(큐슈대, 한국 한시 전공), 교청거(橋淸擧) 교수를 비롯해, 북경대 철학과 교수 2인 등 모두 7명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명시연묵전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30명이 작품을 출품한다. 중국 양주시 기념행사는 오는 10월15일에 열린다. 올해는 특히 최치원 기념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대규모 인원의 참석이 예상된다. 고운회보 발간도 예정돼 있다. 경주최씨명현문집 국역은 201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2010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에서는 ▶2010년 신년회 개최 ▶고운사업회 정기총회 ▶고운시조 메달제작 ▶고운총서 2집 및 3집 간행 ▶중국 양주시 고운 시조 제향 및 유적지 답사 ▶달력제작과 이에 대한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 협조 ▶2010년도 기부금 납부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사무총장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과 보고, 최병윤 감사의 감사보고도 있었다. 이날 최상기 감사는 입원 중이어서 감사보고에 참석하지 못했다. 총회에 참석한 종친들은 제반 보고에 대한 수정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최수인 전 성균관 부관장이 새로 감사에 선출된 것을 비롯해 최효석 종친 등 5명이 새로 이사에 선임됐다.

굴지기업들 경주 최부자네서 同伴과 相生을 배우다

신세계, "최부잣집의 동반전통 배우자"

포스코, 최 부자 정신 P 광고 상생 홍보

국내굴지의 기업들이 경주 최부자 집의 정신을 경영이념으로 배우고 있다. 대표적 유통업체인 신세계는 사회적 화두인 '동반 성장'을 400년 부자로 내려오는 경주 최부자에게 배우고 있다.

신세계는 올해 1월 곤지암리조트에서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해 임원 1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을 주제로 개최한 '2011년 신세계 윤리경영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작은 '400년 부자의 비밀 경주 최부자'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것이었다.

400년 동안 부와 명예를 유지하면서 부자로서 철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켜왔던 최부잣집의 전통을 배우자는 취지였다.

400년 동안 부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극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적정이윤을 지킴으로써 안정적인 부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신뢰와 신망을 동시에 얻고 소작인들의 부를 늘리는 동반 성장의 정신 덕분으로 신세계는 본 것이다.

신세계 윤리사무국 최병용 국장은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책임과 의무를 다한 최 부자의 사례를 통해 상생, 나눔경영을 통한 동반성장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경주 최부자' 정신으로 상생경영을 표명하고 나섰다. 포스코가 최부자집이 등장하는 새로운 기업PR 광고를 통해 상생경영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포스코는 광고에서 '재산을 만석이상 모으지 마라', '흉년엔 남의 논밭을 사지 마라', '나그네에게 후하게 대접하라' 등 최부자에 전해 내려오는 가훈을 그대로 활용했다.

이후 '당신에게서 배웁니다'라는 카피로 포스코가 최부자의 가훈을 배워 상생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기존의 기업PR광고가 포스코의 '글로벌 기업' 이미지를 강조했다면 이 광고에서는 정확히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의 인하우스 광고대행사인 포레카는 이번 광고 제작을 위해 직접 경주 최씨 종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레카는 최씨 종손이 사기업의 영리를 위해 최씨 가문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포스코는 국민기업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광고 소재로의 활용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公 知 事 項〉

1. 고운 시조님 메달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시조님 메달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한정품).
   - 가격: 25,000원.
   - 전화: 02-732-8118, 02- 738-3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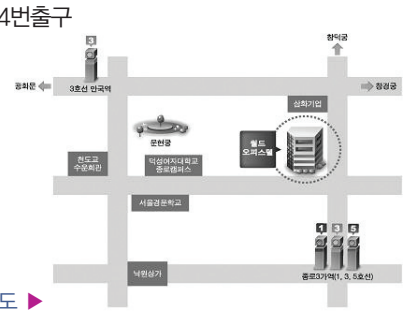
고운 시조 메달 모습

2. 屛風書(병풍서)
   - 고운시조님의 眞鑑禪師 碑文(自筆 · 前面 8폭)과 黃巢檄文(後面 6폭)書 판매 주문 받고 있습니다
   - 가격: 3만원
   - 전화: 02-732-8118, 02- 738-3477
3. 고운회보에 종친 여러분의 광고를 접수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이전

경주최씨중앙종친회와 (사)고운국제교류사업회에서는 그동안 숙원사업 이었던 사무실을 구입하여 현재 인테리어 작업중에 있으며 5월말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욱 발전하는 종친회 및 고운사업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 사무실 이전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301호
2)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출구
     종로3가역 6번출구
   -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6번출구
   -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6번출구



약도 ▶

경주 교촌 한옥마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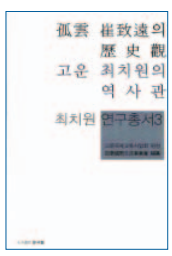
경주최씨 가문의 생활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경주 교촌 한옥마을 프로그램이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경주 관광특구는 18억원의 사업비로 경주최씨 가문의 생활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교촌 한옥마을 프로그램을 구축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과 연계해 관광지에 대한 모든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 8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보문호 주변에 저탄소 녹색 탐방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의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전국 17곳의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 평가를 거쳐 5곳을 선정하고 사업대상지에 각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도서안내

孤雲시조의 역사관을 분석한다



「최치원 연구총서 3집」
가격 30,000원

「최치원 연구총서 3집」은 고운 시조의 역사관을 탐구하고 있다. 부제도 「고운 최치원의 역사관」이다.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운 시조의 역사관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인식과 당시 신라의 국제적인 상황, 고운 시조가 찬술한 「제왕연대력」 등을 분석하고 살펴보고 있다.

1부는 고운 시조의 역사 인식이다. 고운 시조의 역사의식에 대한 전반적 고찰에 이어 고대 인식과 그 함의 일통삼한을 매개로, 문학에 나타난 역사 정신, 중국사 탐구와 귀국 직후의 정치개선 방안 대숭복사비명에 인용된 중국역사 사례를 중심으로 세분화 하여 고운 시조의 역사인식을 고찰한다. 2부는 고운 시조의 발해 고구려 역사관 탐구다. 고구려와 발해관을 중심으로 한 북방 인식, 발해 인식을 세밀하게 탐구한다. 3부는 고운 시조가 찬술한 「제왕연대력」에 대한 분석이다. 「제왕연대력」을 통해 본 고운 시조의 역사 인식, 고운 시조의 신라전통 인식과 「제왕연대력」의 찬술, 고운 시조의 「제왕연대력」에 대한 검토 등을 하고 있다.

「최치원 연구총서」는 고운국제교류사업회가 출범한 후로 고운 시조에 관한 연구를 한 자리에 모아 순차적으로 총서를 발간하기로 기획된 이후 현재까지 1집 「고운 최치원의 종합적 조명」, 2집 「고운 최치원의 철학 종교 사상」에 이어 현재 3집까지 발간된 상태다. 4집은 고운 시조의 문학관을 주제로 2011년도 9월 중 발간될 예정이다.

孤雲 始祖모신 書院과 祠宇 봄 맞아 일제히 祭享 모셔

▷무성서원 춘기제향 모습.

고운 최치원 시조를 배향하고 있는 전국의 주요 서원과 사우들이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춘향제를 올리고 고운 시조의 높은 학문과 사상을 기렸다.

전국 각지의 서원과 사우의 춘향제일은 학남서원(鶴南書院, 3월12일), 운암사(3월14일), 무성서원(武城書院, 3월23일), 단동사(3월23일), 부성사(富城祠, 3월23일), 서악서원(西岳書院, 3월23일), 금산사(3월23일), 용강서원(4월2일), 구회당(4월5일), 학사당(4월6일), 금운사(4월12일), 대곡영당(4월12일), 도충사(4월17일), 남악서원(南岳書院, 4월18일), 해운대(4월17일), 봉양서원(4월20일), 지산사(4월22일), 두곡영당(5월20일) 등이다. 이들 중 주요한 서원과 사우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학남서원은 경북 청도군 각남면 일곡리에, 청도에서 서쪽으로 8km 지점에 있다. 1916년에 창건돼 고운 시조의 영정을 모신 영당 계동사(일명 일곡영당)가 있는 곳이다. 무성서원은 전라도 태인(泰仁), 오늘날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지어진 서원이다. 1484년 문창후 최치원(文昌侯 崔致遠) 시조를 모시기 위해 태산사(泰山祠)로 지어졌으며 1696년 여러 성현 및 위인의 사당을 합쳐 서원으로 만들어지면서 사액을 받았다.

부성사는 고운시조의 영정을 모시고 그를 추모하는 유림들이 세운 도충사였다가 흥선대원군 때 훼철된 후 순종 1년(1907)에 새로 단장되고 1913년 부성사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 있는 자리로 옮긴 사우다. 고운 시조가 직접 쓴 '과선각' 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서악서원은 고운 시조와 더불어 신라 삼국통일의 중심인물인 김유신 장군과 설총 선생을 배향하고 있다. 조선 명종 때 문신인 이정(1512~1571)이 경주부윤을 지낼 때 지방 유림과 뜻을 같이하여 명종 18년(1563)에 세운 것이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으나 1602년 묘우, 1610년 강당과 동·서재를 새로 지었다. 인조 원년(1623)에 사액서원으로 '서악' 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도 훼철되지 않고 살아 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이다. 구회당은 근세에 종친들에 의해 세워진 사우이다. 경주 최씨 광단공(匡端公派) 종중이 음력 9월9일에 회합하는 봉선목족지소(奉先睦族之所)로 1912년에 창건했다. 합천의 학사당(學士堂)은 만년에 벼슬을 버리고 가야산으로 입산하였던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의 사우로, 홍류동계곡(紅流洞溪谷)에 있다. 인근에는 고운 시조를 추모하여 세운 농산정(籠山亭)과 그의 업적을 기리는 문창후유적비가 있다.

진주의 남악서원(南岳書院)은 신라(新羅) 김유신(金庾信)장군이 진을 치고 휴식하던 중신령이 나타나 삼국통일 위업의 가르침을 받아 높은 공을 세운 자리에 세워진 서원이다. 1922년 지방 유림(儒林)들이 중건(重建)하고 경주(慶州) 서악서원(西岳書院)의 이름을 본따 남악서원(南岳書院)이라고 하였다.

남악서원은 서악서원과 마찬가지로 고운시조와 김유신 장군 설총 선생을 배향하고 있다.

해운대서 孤雲始祖 春期祭享 올려

▷제향에 앞서 해운대구 동백섬에 있는 고운 시조 동상에 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지난 4월17일 부산 해운대 동백섬에서 고운 최치원 시조의 춘계제향이 거행됐다. 이날 제향에는 최현돌 부산종친회 회장을 비롯한 약 1천여명의 종친과 부산시민들이 참석했다.

초헌관은 배덕광(裵德光) 해운대구청장, 아헌관은 관화병(關華兵) 중화인민공화국 주 부산 총영사, 종헌관은 나외순(羅外順) 해운대구 의회 의장이 맡았다. 사회는 최기용(崔琪洛) 종친이었다. 해운대는 동백섬 남쪽 끝 부분 바다와 기암괴석이 절정을 이룬 해안의 바위 위에 음각된 '海雲臺'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고운 시조가 가야산 입산 길에 이곳을 지나다가 주변의 자연 경관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대(臺)를 쌓고 바다와 구름, 달과 산을 음미하면서 주변을 거닐다가 암석에다 자신의 아호인 '海雲臺'를 음각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동래부읍지(東萊府邑誌) 고적조에 의하면 고려 때의 문신 정포(1309-1345)의 海雲臺란 시에 "대(臺)는 황폐하여 흔적도 없는데, 오직 해운대란 이름만은 말하네(荒臺漫無址猶說海雲臺)"라고 쓴 글이 전해지며 해운대 제향은 매년 해운대구 주최로 거행된다.

지난해 향사에도 배덕광(裵德光) 해운대구청장이 초헌관을 맡았다.

한편 해운대구는 해운대 뿌리찾기의 일환으로 고운 시조의 자취가 남아 있는 중국 강소성 양주시와 활발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경주 上書莊에서 춘계향사 올려

▷상서장 제향 모습.

경주최씨대종회는 지난 4월16일 경주 상서장에서 춘계향사를 올렸다.

이날 향사에는 최병국 회장과 최염 중앙종친회 명예회장,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400여명의 종친들이 참석했다.

상서장은 경상북도 기념물 제46호로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고운 시조의 집터이다. 고운 시조가 시무책(時務策)을 올린 것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고려 태조 왕건에게 글을 올린 집' 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곳에는 영정각, 상서장, 추모문 등이 세워져 있고, 조선 고종 때 건립된 비가 남아 있다. 이들 건물은 무너졌던 것을 근세에 후손들이 다시 세워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고운 시조는 신라말에 고려 태조가 고려를 건국하고자 할 때 왕건이 비상한 사람으로 천명을 받아 반드시 나라를 열 것을 알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글 중에 "계림은 누런 잎이고 곡령(鵠嶺)은 푸른 소나무"라는 구절이 있었다고 한다.

고려 현종은 "최치원이 조상의 왕업을 몰래 도왔으니 그 공을 잊을 수 없다" 하여 명을 내려 내사령(內史令)을 추증하고, 14년 태평(太平) 2년 임술(1022년) 5월에는 문창후(文昌侯)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

상서장은 고려 현종 이후 붙은 이름이라 전한다.

종친 소식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

최수부 종친이 회장으로 있는 광동제약이 환경운동연합으로 부터 환경보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디딤돌상을 수상했다. 광동제약은 지난 2008년 부터 매년 1회씩 개최하는 옥수수 가족캠프를 통해 우리 토종옥수수의 소중함과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

최진민 종친(귀뚜라미 그룹 회장)이 한국형 온돌보일러인 저탕식 구조의 가스보일러 제조기술 개발로 대한민국 100대 기술과 주역으로 선정됐다. 한국공학 한림원이 주관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100대 기술과 주역 선정은 한국산업발전사에 주력제품 중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개발의 주역인 엔지니어를 발굴하여 경제도약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최광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최광주 종친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지난해 11월1일 성남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제7회 전력기술진흥대회 및 전기인의 날 행사를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실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3천500명이 참석했다.

최진식 심팩그룹 회장

최진식 종친이 회장으로 있는 심팩그룹이 부평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인천시에 연평도 주민 돕기 성금 2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기부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진식 종친은 사재 3천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최진식 종친은 "기업의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사회에 수익의 일정부분을 환원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이다"고 말했다.

최평규 S&T그룹 회장

최평규 S&T그룹 회장이 S&T중공업 '2011 소통워크숍'에서 소통을 주제로 특강했다.

최평규 회장은 올해 1월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경상남도 통영에서 임원 및 팀장, 파트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S&T중공업 워크숍 특강에서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소통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지시만 하는 것은 강요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고 포기하면 단절이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달하면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소통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지방 종친회 소식

경남종친 임원 신년교례회

경남종친회는 지난 1월7일 창원 인터내셔날 호텔에서 신년교례회와 함께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의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옥천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아 국민의례, 시조에 대한 경례, 최효석 회장 인사에 이어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의 특강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충경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주 최부자의 노블리스오블레제'를 주제로 열강했다. 강연 후에는 자리를 옮겨 임원소개와 더불어 건강을 비는 건배와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홍천종친회 총회

홍천종친회(회장 최정석)는 지난해 12월16일 홍천읍 은혜 뷔페에서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보고, 결산보고, 연혁보고에 이어 분회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호남종친회 이사회

호남종친회(회장 최관수)는 지난 4월24일 이사회를 열어 2010년 사업및 결산 보고를 듣고 2011년사업 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경동 사무국장이 보고를 하고 호남 종친회 회관(사무실) 건립 추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부산종친회 총회

부산종친회는 지난해 12월25일 부산의 대도호텔에서 부산종친회와 (사)고운 최치원 선생 해운대 보존회 총회를 열었다. 최기락 신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최경석 고문을 비롯해 60여명의 종친들이 참여해 부산종친회와 보존회의 이사들을 선임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최현돌 회장은 "종친회 조직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종친영입, 구단위 조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종친회 정기총회

충북종친회는 지난해 12월10일 청주시 거구장 대회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보은 종친회 최병열 종친에게 효행상을 수여했다.

이날 최철수 회장은 "조상의 빛나는 업적과 유훈을 이어 받아 후손들에게 전승하는 것이 종친의 사명이자 주어진 역할이다"고 말했다.

예천화수회 정기총회

예천군화수회 2011년 정기총회가 지난 3월7일 예천읍 예천웨딩홀에서 개최됐다. 지난 2월22일 열린 임원회의 결과를 만장일치로 추인해 최방수 회장이 유임하고, 감사에 최호규(유임), 최재혁 씨를 선출했다.

인터뷰 – 최현돌 부산종친회장

孤雲 선조 智慧와 業績 정신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장군수를 3번 연임하시고 공직에서 물러나신 뒤 부산종친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부산종친회의 활동 상황을 전국의 종친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년간 기장군수로서의 소임에 온 힘을 다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및 경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고운 선조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지혜로운 기상과 우리 경주최씨 자존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종친회의 회장을 맡은 이상 선조님의 업적을 받들어 섬김은 물론 전국 각지의 종친 형제님들이 하나 되어 우리 부산을 따뜻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제일의 지방종친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근래 들어 해운대구가 고운 최치원 시조의 유적지를 성역화하고 해운대 암각화 보존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운대구는 아니지만 부산지역의 자치단체장을 역임하신 분으로 소감이 어떠하십니까.

지난 4월17일 선조님 향례를 봉행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1천여 명이 넘는 손님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해운대 배덕광 구청장을 위시한 많은 관계자분의 크나큰 관심으로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선조님의 발자취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세계적인 명승지 해운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젊은이들의 자기 선조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엷어지고 있습니다. 고운(孤雲)이라는 자랑스러운 명현을 선조로 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숭조의식(崇祖意識)의 중요성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급성장하여 오면서 질서의식과 인간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부재하고 기회주의와 물질 만능의식이 팽배하여 왔습 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후손을 위하여 우리 모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뿌리를 가르쳐 주셨던 고운 선조님의 지혜와 숭고한 업적을 정신문화로 계승 발전시켜가야 합니다. 훗날을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숭조의식 함양과 옛 것을 익혀 새로움을 얻는 지혜와 새로운 교육지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의 종친 형제님들의 건승을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中國 揚州에서 孤雲시조에게 祭享 올려

초헌 崔埰亮, 아헌 崔海東, 종헌 崔天圭

경주최씨중앙종친회는 지난 2010년 10월13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양주시를 방문해 고운 시조에게 제향을 올렸다.

10월15일 오전 10시에 중국 양주시에서 거행된 제향은 당성유지(唐城遺址) 고운 최치원 기념관 앞 강당에서 한국풍정사진 전시회 개관 기념식 행사의 일환으로 거행됐다.

참석종친은 총 81명으로 초헌관은 최채량(崔埰亮) 사성공파정무공(司成公派貞武公)14대 종손, 아헌관은 최해동(崔海東) 충렬공파영귀공문중 도유사, 종헌관은 최천규(崔天圭) 화숙공파 하남회장이 맡았다.

집례는 최규식(崔奎植) 화숙공파 회장, 대축은 최병수(崔炳秀) 유도회경주지회 총무, 사준은 최시호(崔時昊) (유)대동상사,전작은 최창규(崔昌圭) 시사경찰청신문 논설위원장, 봉작은 최종철(崔鍾喆) 하남시의회 의원, 알자는 최호규(崔鎬圭) 자영업이었다.

제향에 앞서 전야행사로 최염 명예회장과 부회장단 및 집행부 대표가 양주시 간부와 상견례를 했다.

이날 양주시장 환영 인사말과 최염 회장의 답사가 오갔다.

이어 양주시 주최 만찬에 전 종회원이 참석 하여 환영사와 답사를 나누고 기념품 증정식을 거행했다.

10월16일에는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 남쪽에 있는 종남산(終南山) 금선관(金仙觀)에 있는 고운 시조의 동상을 참배했다.

고운시조 기념관은 총 1만2392㎡ 부지에 사업비 10억여원을 들여, 연건평 15만 7379㎡의 중국전통양식 목조 2층 건물로 건립됐다.

기념관 1층에는 최치원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2층에는 한중교류 역사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 옆 99㎡ 규모의 전시실에는 고운 시조가 당나라에서 이름을 떨친 토황소격문과 계원필경 등 관련 저서와 유물을 볼 수 있다.

부산 해운대구 孤雲시조 유적지 성역화
海雲臺석각 훼손심각 보존방안도 마련돼

▷해운대 석각.

부산 해운대구가 동백섬에 있는 고운 시조 유적지를 성역하고 훼손이 심각한 해운대 석각의 보존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해운대구는 동백섬 정상에 있는 고운 최치원 선생의 기념비와 동상, 선생의 유품이 전시된 기념관 주변 정비에 들어간다.

해운대구는 유적지 내에 있던 배드민턴장을 5월 중으로 없애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등대광장과 유적지를 연결하는 진입로를 정비한다. 또 한글로만 된 안내문을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나란히 적은 안내문으로 교체한다. 2명의 문화해설사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치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안내하기로 했다.

해운대구는 고운 시조가 쓴 해운대 석각에 대한 보존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해운대 석각 보존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보존 및 보강 작업과 모니터링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해운대구가 지난 6월 공주대 산학협력단 화재진단보존기술연구실에 '해운대 석각 보존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해운대 석각은 박락(돌에 새긴 글씨가 오래 묵어 긁히고 깎여서 떨어짐)과 박리(벗겨짐), 균열(갈라져 터짐), 흑화(검게 변함) 현상이 심하고, 주변 생물이나 시멘트 모르타르, 페인트 등에 의한 2차적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와 습도, 온도 등의 변화에 따른 암석의 수축과 팽창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고, 강수와 해풍으로 박리와 박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암석에 함유된 철(Fe)로 인한 화학적 풍화도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분석됐다. 석각의 풍화 훼손율은 균열이 41개, 박리가 6.8%, 박락이 30.4%, 흑화가 15.9% 등으로, 박락에 의한 훼손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반에 새겨진 글자 훼손율은 '海(해)' 자는 42%, '雲(운)' 자는 48.2%, '臺(대)' 자는 25.2%로, 전체적으로 원형에 비해 38.1%의 훼손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는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해운대석각에 대한 보존 및 보강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흑화된 부분과 페인트로 오염된 부분은 씻어내고, 금이 간 곳은 같은 재질의 암석 분말로 접합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운대석각은 동백섬 내의 한 바위 표면에 '해운대(海雲臺)'라는 글씨를 새긴 것으로,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고운 시조가 이곳을 지나다가 주변 자연경관에 반해 대(臺)를 쌓고, 선생의 자(字) 해운(海雲)을 따서 암석에다 글자를 새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해운대'란 지명의 유래가 됐다.

▷해운대 동백섬 유적지에 있는 고운 시조 동상.

경주최씨 최부자이야기 서울시민 매료

지난해 7월 서울시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남산골 우리 종가 이야기'에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가족 문화를 되새기며, 옛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경주 최부자 집의 전통을 소개했다.

'경주최씨 사성공파 최의기(崔義基 · 1653~1722) 선생 종가'가 참가해 '명문 종가이야기'의 저자 이연자씨와 함께 12대 400년간 이어온 '최부잣집' 종가의 전통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노블리스오블리제의 전형인 경주최씨 교동파의 가르침이 주종을 이루었다. 최 부잣집의 육훈은 참석자들을 매료시켰다.

육훈은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둘째, 만 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며 만석이 넘으면 사회에 환원하라. 셋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넷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째, 며느리들은 시집온 뒤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여섯째,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이다.

경주최씨 교동파 사람들이 12대 400여년에 걸쳐 만석꾼 부자의 기틀을 세운 것은 경주 이조리 마을에서 살았던 최치원의 17세 손인 병자호란 때의 영웅 최진립(崔震立 · 1568~1636)장군 때부터였다. 그의 아들 최동량은 개간사업으로 부를 확장시켰으며, 장손 최국선(1631~1682)에 이르러 만석꾼의 반열에 이르렀다.

中國(揚州) 孤雲 始祖님 享祀 奉審記

최광규〈중앙종친회 부회장, 고운국제교류사업회 이사〉

▷중국 양주에 있는 최치원 기념관 전경.

시조님 향사를 올렸는데 한국에서
참석한 종친회 일행 80여명과
양주시민,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관광객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慶州崔氏中央宗親會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10월15일(양) 중국 양주에서 고운 시조님의 秋季 享祀를 모시고 있으며, 올해도 10월 13일부터 10월18일까지 5박6일동안 중국의 남경, 양주, 서안 등을 방문하여 시조님의 추계향사를 치루고 유적지 등을 참관하였다.

일행 61명은 아침 10시에 인천공항에 집결하여, 12시 반 중국 동방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약 2시간 비행 후 중국 남경공항에 도착하였다. 단체비자로 출국한 일행들은 순서대로 줄을 서서 입국수속을 마쳤고 짐을 찾은 후 남경공항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관광안내자의 안내를 받으며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첫 관광일정에 들어갔다.

우선 남경시에 있는 남경대학살관을 관람하였는데 제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이 남경을 침공하여 30만이나 되는 인명을 무자비하게 살육한 모습들을 생존자들의 증언과 사진, 후에 발굴한 인골 등을 그대로 생생하게 재현해 놓고 항일 감정을 북돋우고 있었다. 첫날 관광은 일정이 늦어 버스 속에서 양자강을 가로 지르는 장강대교만 보았고, 공자의 위패를 모신 남경 부자묘(夫子廟) 사당은 날이 어두워 참배를 못하고 저녁식사만 마치고 호텔로 바로 가서 투숙하는 것으로 첫날의 일정을 마쳤다.

14일, 2일째 우리는 남경을 출발하여 2000년에 세운 고운 시조님 동상이 있는 율수현의 영수탑에 도착하였다. 일행들은 비가 약간씩 내렸지만 시조님 동상 앞에서 최염 명예회장님이 대표로 분향을 하는 것에 맞추어 참석자들 모두 함께 참배를 하였다. 그런데 동상 관리담당자로부터 앞으로 율수현에서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동상의 위치가 옮겨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앞으로 동상을 이전할 경우 꼭 중앙중친회로 연락을 해 주도록 당부를 하고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였다.

고속도로를 따라 약 2시간을 달려 양주시에 도착하였고, 점심식사 마치고 난 후 당나라때 시조님이 벼슬을 하시며 근무하셨던 옛 관아가 있던 자리와 시조님이 다니셨다는 〈최치원경행처〉등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그리고 저녁때는 중앙종친회 간부들은 중국 양주시청을 방문하여 양주시장과 양주시 간부들과 만나 잠시동안 차를 마시며 고운 시조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최염 명예회장님이 대표로 양주시가 시조님 기념관을 건립을 해 주신데 대해 후손들로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만위안을 기부하였다. 이어 종친회 일행 모두는 양주시가 주최하는 저녁만찬에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밤 9시가 넘어서야 양주시 호텔에서 여행 2일째 밤을 보냈다.

여행 3일째 15일은 고운 시조님의 추계향사를 올리는 날이다. 그래서 일행들은 다른 날 보다는 좀 일찍 식사를 마치고 짐을 챙겨 〈崔致遠記念館〉이 있는 당성유지(唐城遺趾)로 갔다.

일행들은 당성유지의 높은 층계를 올라가 입구에 마련된 방명록에 붓으로 서명을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 기념관 주위를 돌아보며 기념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향사 전 오전 9시에는 양주시 관계자와 한 · 중교류관계자 및 양주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진한국-한국풍정도편전(走進韓國-韓國風情圖片展)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전 기념식을 가졌다.

이어 10시부터 시조님 향사를 올렸는데 한국에서 참석한 종친회 일행 80여명(부산에서 별도 출발하여 참가한 종친들 포함)과 양주시민,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관광객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최규식 종친(화숙공파 회장)의 집례로 홀기에 따라 헌관들의 봉헌이 있었고 참배자들도 모두 뒤쪽에 서서 시조님의 참뜻을 기리는 제사를 올렸다.

엄숙히 향사를 마친 다음 참석자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음복을 하면서 이번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기념관 층계 앞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어 일행들은 버스를 타고 남경공항으로 가서 항공편으로 당나라 때 장안이었던 서안으로 갔다.

여행 4일째 16일에는 오전에 서안 남쪽 종남산에 있는 중국 도교 사찰 금선관을 참관하였는데 사찰안 법당 안에는 고운 시조님 동상이 안치되어 있었다. 우리는 최병주(한국금선학회장) 종친의 안내에 때라 금선관 참관을 마치고 오후에는 652년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과 불상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는 대안탑을 관람하였다.

여행 5일째인 17일에는 오전에 서안 삼학가에 자리잡고 있는 비림박물관에 가서 박물관내에 있는 〈碑林〉을 관람하였다. 비림은 비석들이 모여 이루어진 숲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중국 북송 철종(1090년)때 지어졌다고 하며 한나라 때부터 청나라까지 2천300여개의 비석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중 천개만을 전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 비림에서는 전서, 예서, 초서, 행서 등 각종 서체를 비교할 수 있고 역대 유명 서예가들의 필체를 직접 감상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다음은 여산으로 가서 양귀비와 현종이 목욕하였다는 화청지(華淸池)를 관람하였고 오후에는 유명한 진시황 병마용을 관람하였다. 병마용이란 흙으로 빚어 구운 병사와 말을 가리키는데 불멸의 생을 꿈꿨던 진시황이 죽은 뒤 자신의 무덤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전해오고 있으며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힐 만큼 거대한 규모와 정교함을 갖추고 있었다. 1974년 중국의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어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현재까지 3개의 갱이 발견되었고 지금도 발굴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700여개의 실물크기 도용과 100개가 넘는 전차, 40여필의 말, 10만여개의 병기가 발견되어 창고에 보관중이라고 한다.

이번 여행 마지막 날 18일에는 일행들은 오전에 귀국할 채비를 하고 가방을 모두 챙겨 버스에 싣고 아침 8시 호텔을 출발하여 서안 시내에 있는 아방궁을 관람하였다.

아방궁은 서안 서쪽 교외에 있는데 중국 진시황제가 세운 궁전으로 지금은 유적만 남아 있던 것을 일부 공연장 등만 복원하여 관광객을 맞았다. 유적지는 동서가 2천500m 남북이 1,000m 크기로 앞에 전과 뒤의 궁으로 나눠져 있었고 전(殿)의 유적지는 동서 1천300m, 남북 500m의 2층 건물로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하는데 아방궁의 건설은 황제의 위엄을 보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알현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우리들은 아방궁을 관람한 후 서안공항에서 상해로 가는 국내선 항공편으로 오후 3시경 상해(포동) 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오후 6시경 한국으로 가는 국제선으로 갈아타고 저녁 8시 50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각자 짐을 찾은 후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끝으로 이번 고운 시조님 양주 추계향사 여행을 참관 하고 보니 여행기간이 5박 6일로 너무 길어 관계자는 물론 나이 드신 종친들께서 피곤해 하시는 걸 보고 앞으로는 일정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았다.

아울러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최염 명예 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이 너무 많은 애를 쓰셨고, 그간 10여년 동안 최영건 전 중앙종친회 사무총장과 최천규 사무국장의 노고가 많았으며 매번 향사의 집례를 맡은 최규식(화숙공파 회장), 10여년간 제주를 직접 챙겨오는 최세환(충제공파회장) 종친 등 많은 집사자님들의 노고가 컸다.

唐나라 관리생활을 한 孤雲선생

허 유(許由)/한국비림박물관장

▷중국 고순현에 있는 최치원교 모습.

唐 황제 孤雲의 天才性에 놀라다.

최치원은 857년 신라 헌안왕 때 태어났다. 육두품 집안에서 태어나 벼슬의 한계를 이미 알고 있던 그의 부친 견일은 12살 어린 나이였지만 치원을 당나라로 유학을 보냈다. 계원필경 서문을 보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걸었던 기대가 어떠하였는가를 짐작케 한다.

"신이 열두 살에 집을 떠나 서쪽으로 가려고 배를 탈 때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훈계하기를, '10년 동안 공부하여 진사에 급제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라 하지 말라. 나도 또한 아들을 두었다고 하지 않겠다. 가거든 부지런히 공부하는데 힘을 다하거라' 하였습니다."

최치원은 장안(長安)의 위(韋)승상 댁에서 기거했다. 위 승상은 치원을 대하자 영리한 아이라 생각이 들어 글공부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물어 보았다.

"글도 써 보았느냐?"

내어주는 지필묵을 끌어당겨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시를 한 수 써 내려갔다.

가을바람 부는 밤 애써 시를 읊지만
세상 사람들 아는 이가 적다네
창밖에는 한 밤중에 비만 내리는데
등잔 앞의 내 마음은 고국을 달려가네

이것이 그 유명한 '가을밤 비 소리' 추야우중(秋夜雨中)이다.

치원은 위 승상 댁에서 열심히 글을 읽었다. 그가 다섯 살 때 신라의 경주에서 글을 읽는 소리가 당나라 천자의 귀에까지 들렸다고 할 정도로 글 읽는 소리가 낭랑했다는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글을 읽는 소리가 당나라 궁궐의 황제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 당나라 황제 의종은 최치원을 한 번 만나겠다고 했다. 드디어 당나라 황제를 만나게 되었다.

"네가 시를 잘 짓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었다. 내가 주는 이 함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 맞춰보겠느냐?"

치원은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힘차게 문장을 써내려갔다.

단단한 돌 함속에 있는 물건은
둥글지만 옥도 아니고 금도 아니네
밤마다 때를 알리는 새지만
뜻만 품었지 아직 소리는 내지 못하누나

당나라 황제가 석함에다 넣어 둔 것은 바로 계란이었다. 황제가 그 신통함에 어안이 벙벙해서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 다음 해에 바로 장안에 있는 국자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장안에 봄이 오자 이를 노래했다. '장안춘(長安春)'이다.

연기 드리운 장안거리엔 수양버들 늘어섰고
저물녘 화려한 누각엔 노래 소리 한창이네

중국 역사서인 '신당서'에는 최치원의 『계원필경』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 정사에서 외국인 작품을 소개한 것은 유일하다고 한다. 18세에 장원급제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너무 출중한 실력이 오히려 시기와 모함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2년간 떠도는 동안 많은 시를 지었다.

그는 동으로 서로 먼지 나는 길을 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시로 표현했다. 도중작(途中作)이다.

동과 서로 떠도는 먼지 나는 길에서
홀로 여윈 말을 타고 얼마나 고생했나
돌아감이 좋은 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다만 돌아가 봐도 집 또한 가난하다네

유랑 2년 만인 876년에 선주(宣州)의 율수현위로 첫 보직을 받게 되었다. 치선주에는 율수현을 비롯하여 고순현과 양주현이 인접해 있는데 모두 율수현의 책임지역이어서 수시로 다녔다. 이때 다섯 권의 문집을 지었는데 바로 『중산복궤집』이다.

고순현에서 雙女墳의 전설을 만나다

남경시 고순현 문화국장인 장영년(張永年)씨는 고순현박물관을 찾은 우리 일행에게 그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특히 쌍녀분(雙女墳)에 관한 얘기는 우리 일행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쌍녀분으로 안내해 줄 수 없겠느냐고 제안했다.

고순현은 8백년이나 지난 거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강남고거리로 불린다. 강남고거리를 거니는데 상점의 한 주인이 수를 놓은 인물화를 팔고 있었다. 최치원 선생의 초상화였다. 쌍녀분을 앞두고 수로를 건너기 위한 자그마한 다리가 하나 걸려 있었다.

안내하는 사람이 다리를 가리켰다. 그 다리에 이름이 써 있었는데 바로 '致遠橋(치원교)'였다. 내를 건너서 조금 가니 쌍녀분이 우리를 맞고 있었다. 분묘 앞에는 커다란 비석이 서 있었다. 장난영(蔣蘭英, 62세)이라고 밝힌 한 여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한을 품고 죽은 18세, 16세의 아리따운 장씨(張氏) 자매가 묻혀 있는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을 신라사람인 최치원 선생이 풀어주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최치원 선생이 장씨 자매와 나눈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 꼼짝 못하게 되자 내가 이 무덤에 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았습니다"

함께 온 같은 마을의 이조중(李祖中, 67세)이란 할아버지도 말을 받아 주었다.

"무덤을 헤치면 머리가 아프고, 무너진 무덤을 보수하면 아프던 몸이 좋아집니다."

최치원 선생은 역관 앞 산기슭에 쌍녀분이라는 고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호기심이 생겨 쉴 틈도 없이 묘지로 혼자 달려가 단 번에 칠언율수를 써 내려갔다.

어느 집 두 여자가 이 버려진 무덤에 깃들어
쓸쓸한 지하에서 몇 번이나 봄을 원망했나요
그 모습이 시냇가 달에 부질없이 남아있으나
이름을 무덤 머리 먼지에게 묻기 어려워라
고운 그대들 그윽한 꿈에서 만날 수 있다면
긴긴밤 나그네 위로함이 무슨 허물이 되리오
외로운 여관에서 운우를 즐긴다면
함께 낙천신을 이어 부른들 어떠리오

그런데 홀연 한 젊은 여자가 손에 붉은 주머니를 들고 다가와 "우리 집의 팔낭자와 구낭자가 수재께 말을 전하랍니다" 말을 마치고 공손히 붉은 주머니를 전했다.

최치원은 놀라며 "당신이 말하는 두 낭자는 누구이며, 집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돌을 쓸어내고 시를 쓰신 곳이 바로 두 낭자가 사는 곳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앞에 서있는 여자도 귀신이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치원은 두려워하지 않고 붉은 주머니를 받았다.

첫 번째 주머니를 열어보니 이는 팔낭자가 쓴 화답 시였다.

죽은 넋 이별의 한을 외로운 무덤에 맡겼어도
예쁜 뺨 고운 눈썹엔 오히려 봄이 어리었구나
학 타고 삼도(三島) 가는 길 찾기 어려워
봉황비녀 헛되이 구천의 먼지로 떨어졌네.
살아있을 때는 나그네를 몹시
부끄러워 하였는데
오늘은 알지 못하는 이에게 교태를 품도다
아주 부끄럽게도 시의 글귀가
제 마음 알아주시니
한 번 고개 늘여 기다리고
한편으론 마음 상합니다

이어 두 번째 주머니를 열어보니 구낭자의 화답시였다.

왕래하는 이 그 누가 길가의 무덤을
돌아 보겠나요
난새 거울과 원앙이불엔 먼지만 일고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지만
꽃이 피고 지니 세상은 봄입니다.
늘 진녀(秦女)처럼 세상을 버리기 위해
임희(任姬)의 사랑 배우지 않았지만
양왕(襄王)을 모시고 운우(雲雨)를 나누려 하니
이런 저런 걱정에 마음 상하네

그날 밤 치원은 두 여인과 함께 시와 사랑을 나누었다.

현위(縣尉)가 되었으나 그의 능력을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2년 만에 그만두고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과 글을 나누며 살았다.

高駢 장군을 만나 檄黃巢書를 짓다

그는 현위시절 함께 교류하던 이위(李尉)의 문객이 되어 오가는 묵객들과 두터운 교분을 쌓았다.

여기서 고병(高駢) 장군을 만나게 되었다. 고병에 대한 치원의 마음은 남다른 것으로 계원필경집의 작품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치원이 고병의 서재를 지나다 글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마치 용이 누워있는 형상처럼 역동적이고 필법 또한 신이 돕고 있는 듯 함을 느끼고 표현한 시가 필법(筆法)이란 시이다.

서재를 들여다보니 용이 잠깐 누웠는데
신이 전한 묘한 필법이 기이하게 붓을 돕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투어 배우려하나
오직 수적을 얻을 수 없음을 한탄하네

당시 고병은 진해절도사(鎭海節度使)를 맡고 있었다. 치원이 관직을 그만 두었다는 소식을 듣자 치원의 딱한 사정과 뛰어난 실력을 이미 알고 있는 고병은 치원을 관역순관(館驛巡官)으로 임명하였다. 치원은 고병에 대해 시로 표현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장군은 화살 하나로 두 마리
독수리를 떨어뜨리니
만리 진을 친 오랑캐가
티끌처럼 그날로 사라지네
위엄있는 그의 이름 길이 사막에 떨쳤으니
오랑캐들 다시는 요임금 못 짖으리

중국의 양주시에 가면 최치원 기념관이 있다. 여기에 최치원에 대한 일대기가 판에 전시되어 있고, 계원필경 사본이 있다. 여기에는 고병장군에 대한 만남도 기록하고 있다.

최치원이 고병의 부대에 들어가게 된 시기는 왕선지의 뒤를 이은 황소가 장안을 점령하고 스스로 황제로 등극할 무렵이었다. 고병은 치원을 불렀다.

"황소가 중국 전역을 유린하며 반역을 도모하니 이를 토벌하기 위해 격문을 작성합시다. 황소가 문장에 뛰어난 사람이니 선생의 필력이라면 그도 감탄해 할 것이요. 황소 무리를 떨게하고 백성들이 동조하지 못하게 멋진 문장을 써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격황소서(檄黃巢書)' 즉 토황소격문이 세상에 선보이게 된 것이었다.

(이 글은 허유 선생의 글을 지면 관계상 축약한 것입니다. 한시 원문도 지면 사정으로 생략했음을 밝힙니다.)

우리國學의 첫門을 연 孤雲 始祖②

황소는 조주(曹州) 사람으로 5세 때 시를 지을 정도로 조숙했고 무예에도 능했으며, 과거에 낙방한 후로는 가업인 소금 암매매(暗賣買)에 종사해서 부를 쌓았다.

875년 왕선지(王仙芝)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에 호응해 군사를 일으켰고, 왕선지가 패사(敗死)한 후로는 그 남은 무리를 모아 스스로 솔토대장군(率土大將軍=衝天大將軍)이라 일컫고 하남(河南) · 강서(江西) · 산동(山東) · 복건(福建) · 광동(廣東) · 광서(廣西) · 호남(湖南) · 호북(湖北) 등 여러 성을 공략하였고, 880년에는 낙양(洛陽) · 장안(長安)을 함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놀란 희종(僖宗)은 사천(四川)으로 피난을 했고, 사천절도사(四川節度使) 고변을 제도행영병마도통(諸道行營兵馬都統)으로 임명해서 반란군 진압의 대권을 위임했다. 고변은 문장 · 학문을 이해하는 무인(武人)으로 천평(天平) · 검남(劍南) · 진해(鎭海) 등의 절도사를 역임했고, 황소의 난이 확대되자 천하에 격문(檄文)을 보내 모병을 하고 토적군(討賊軍)을 대대적으로 일으켰다. 위세가 일세에 떨쳐 천자에 의해 토적의 전권을 위임받게 되자 우선 선생을 종사관으로 초빙한 것이었다. 고변이 선생을 종사관으로 발탁한 것은 평소의 문명을 흠모한 탓도 있지만, 선생과 동년(同年=同榜:같은 해 급제함)인 고운(顧雲)의 추천을 참작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운(顧雲)은 지주(池州) 사람으로 자를 수상(垂象)이라 했는데, 재기 발랄한 소장학자로 고변이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시절 종사관을 지냈었다. 선생과는 의기투합하는 사이로 매우 가까이 지내는 벗이었다.(顧雲은 후에 대학자로 대성한다.)

고변의 초빙을 받은 선생은 사양하는 글을 보냈다. 두 번에 걸쳐 완곡하게 사양한다.

"모(某)는 아룁니다. 저는 삼가 생각컨대 줄이 짧은 두레박으로는 깊은 샘물을 길을 수 없고 무딘 칼날로는 단단한 것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는 일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임(周任:옛 賢者, 周나라의 史家)은 말했습니다. 스스로 마땅히 힘을 헤아려서 행할 것이지, 어찌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만 따를 것인가. 저는 동해의 한 선비인데 지난 날 만리 밖으로 집을 떠나 10년 동안 중국에 유학한 것은 본래 말석이나마 과거에 급제할 것과 강회(江淮) 지방의 한 현령이나 바랐을 뿐입니다."

이때의 일을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때에 황소가 반하자 고변이 제도행영병마도통(諸道行營兵馬都統)이 되어 토벌을 하게 되었는데 치원(致遠)을 초빙해 종사관으로 삼고 서기의 소임을 맡겼으며, 그 표장서계(表狀書啓)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하고 있다."

정식 관직은 승무랑(承務郎)으로 시어사(侍御史) 내공봉(內供奉)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에도 도통순관(都統巡官) 시어사 내공봉을 일컫고 있다.

이후 4년 동안 선생은 고변의 군영에서 많은 글을 짓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격황소서(檄黃巢書)'이다.

이 글은 종사관이 된 바로 그 해(唐 僖宗 廣明 2년, 서기 881년) 반란군의 총수인 황소에게 보낸 것으로, 말하자면 관군 총사령관의 격문이다.

글 첫머리부터 심오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명문으로 24세 되는 청년 최치원의 학문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있다.

"대저 바른 것을 지키고 떳떳함을 닦는 것을 도(道)라 하고, 위험에 다다라 변통(變通)을 강구하는 것을 권(權)이라 한다. 슬기로운 자는 때에 순응하면서 이루고, 어리석은 자는 이치를 거슬리는데서 패한다. 그러한 즉 비록 백 년의 수명에 죽고 사는 것을 기약하기 어렵지만, 모든 일은 마음이 주가 되어 옳고 그름은 분별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불지르고 겁탈하는 것을 좋은 짓으로 삼고, 죽이고 상하게 하는 것으로 급선무로 삼아, 큰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속죄할 수 있는 조그만 착함도 없으니,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또한 땅속의 귀신까지도 은밀히 죽일 것을 의논하였을 것이니, 네가 비록 숨은 붙어 있다고 하지만 넋은 이미 빠졌을 것이다."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글을 읽던 황소가 혼비백산(魂飛魄散)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앉아 있던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얘기가 전해 오고 있다.

스물네 살에서 스물일곱 살까지 만 4년 동안은 고변의 군막에서 이와 같은 글을 쓰는 일에 종사했다. 글의 종류가 표(表) · 장(狀) · 서(書) · 계(啓) · 격문(檄文) 등 다양했는데 그 수도 굉장했던 것 같다. 훗날 고국으로 돌아와 이때의 글들을 모아 〈계원필경집〉 20권을 편찬해 헌강왕(憲康王)에게 올렸는데, 그 서문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회남에 종직하며 고시중(高駢)이 글 쓰는 일을 전임하게 되자 몰려드는 군서를 힘을 다해 도맡았습니다. 4년 동안 용심한 것이 만여 수나 되었는데, 줄여 없애기를 거듭하고 나니 열에 한 둘도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감히 모래를 파헤쳐 보물을 찾아내는 일에 견주고, 기와를 헐고 흙손질한 벽에 금을 긋는 일보다는 조금 낫다고 여거서 드디어 〈계원집〉 20권을 이루었습니다."

4년 동안 일만여(一萬餘)편의 글을 지었다고 하니, 그 박식함과 그 필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노산(鷺山) 이은상(李殷相)은 이 대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라비아 기록에 의하면 황소가 반란을 일으킨 곳은 광동지대요, 거기서 회회교인(回回敎人) · 기독교인 · 유태인 · 파사인(波斯人)들 10만여명이 죽었는데, 그 때 그곳에는 우리 신라 사람들도 많이 가 살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은 더욱더 분노를 참지 못하여 실감 있는 글을 썼던 것이다."(부산 해운대 동상 비문의 한 구절)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글들이 우리의 사상사(思想史)나 유학사(儒學史)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국(異國)의 군막(軍幕)에서 저희들끼리의 싸움에 다른 사람 이름(주로 관군측 사령관인 고변)으로 내쏟은 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학문이 무르익고 필력이 용솟음치던 그 시절에 성경현전(聖經賢傳)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던들, 저술 활동에 정력을 쏟았던들 길이 후세에 전해질 빛나는 금자탑이 이룩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사상사도 그만큼 살찌워졌을 것이다.

어쨌거나 선생은 이때의 공으로 당제(唐帝)로부터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는 명예를 누렸다. 금어대(金魚袋)란 붕어모양으로 만든 금빛 주머니로서 벼슬아치들이 띠에 차게 되어 있었다.

금어대 중에서도 자색은 높은 표징이었고, 금어 아래에는 은어가 있었다. 주머니 속에 성명을 적은 표언(標言)이 있어 일종의 면책 특권이 있고 궁중에 드나들 수도 있었다.

28세 되던 해(서기 884년, 甲辰) 선생은 드디어 귀국할 뜻을 굳혔다. 황소의 난도 평정이 되어 군막의 필역(筆役)에서 놓여나게 될 수 있었고, 때마침 신라 본국에서 사신 김인규(金仁圭)가 입당(入唐)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사신 김인규를 따라 사촌아우 서원(棲遠)이 왔으니, 아마도 선생의 귀국을 독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짐작된다.

선생은 서원에게서 오랜만에 집안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불현듯 망향의 정이 솟구쳤다. 상관인 고변을 통해 조정에 진정을 했는데, 당시의 황제 희종(僖宗)은 돌아갈 뜻이 간절함을 알아차리고는 허락을 해주었다. 더구나 그 사이의 공에 보답하는 뜻에서 국서(國書)를 가져가는 사신의 임무를 띠게 특별히 조처를 내려주기도 했다.

고변은 2백관이라는 막대한 돈과 일체의 행장을 챙겨주었고, 심지어 뱃머리에 달면 풍랑이 일지 않는다는 약주머니[藥剌子]까지 보내주는 것이었다. 지극한 인정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선생이 귀국한다는 소식에 문우들이 다투어 석별의 잔치를 베풀고 시도 보냈다. 가장 가까운 동년의 벗인 고운(顧雲)은 읊고 있다.

내 들으니 바다위에 세 마리 금자라 있어서
금자라 머리 위에 아스라하니
높은 산들 이고 있다네.
산위에는 주궁(珠宮) 패궐(貝闕) 황금전(黃金殿)
산 아래에는 천리 만리 우람한 파도들.
그 옆에 한 점으로 찍힌 계림(鷄林)이 푸르르니
자라산 빼어난 정기로 기남아(奇男兒)가
태어났네.
열 두 살에 배타고 바다를 건너와서
문장으로 중국을 뒤흔들고
열 여덟에 문단을 마음껏 횡행(橫行)해
단 한 살에 과거목표 쏘아 맞혔네.

사실 그사이 고국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공부에 파묻히고 학문에 정진하고 벼슬길에 올라 임무에 몰두하다보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 갔을 뿐이었다.

당에 머무는 동안 읊은 시들을 보면 만리 이역에서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향수에 젖어 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가을바람에 애써 시 읊지만
세상엔 알아주는 이 없네
창 밖에는 밤깊도록 비듯는 소리
등불 아래 마음은 만리를 달리네.
(秋風惟苦吟 世路少知音 窓外三更雨
燈前萬里心.) 〈秋夜雨中〉
모래밭에 말 세우고 돌아오는 배 기다리니
자욱하게 아지랑이 낀 수면에
만고의 시름 깃드네.
산이 평지되고 또한 물이 말라져야
인간 세상에 이별이 없어지려는가.
(沙汀立馬待回舟 一帶烟波萬古愁 直得山平
兼水渴 人間離別始應休.) 〈題芋江驛亭〉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남모르게 겪는 향수, 고독, 이별의 정(情)이 그대로 시에 나타나 있다.

다음 시는 또한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소외감의 표출이다.

중국에 와서 객지생활 오래하니
부끄럼 많은 만리 타국 사람이라네
안자(顔子)처럼 가난을 견디는데
맹씨(孟氏)집 같은 좋은 이웃 얻었네
도(道)지켜 오직 옛 공부하거늘
사귀는 정이 어찌 가난을 꺼리리
타향에서 알아주는 이 적으니
자주 찾아간다 싫어하지 마오.
(上國裹栖久 多踵萬里人 那堪顔氏巷 得接
孟家隣 守道唯稽古 交情豈憚貧 他鄕少知己
莫厭訪君頻.) 〈長安旅舍與于愼微長官接隣〉

고변이 풍랑을 진정시키는 약주머니를 주고 그걸 뱃머리에 매달았지만 효험은 나지 않았다. 망망대해에 산더미 같은 파도는 끝없이 밀려오기만 했다. 할 수 없이 부산(浮山)이라는 곳에 이르러 배를 멈추고 풍랑이 자기를 십여 일이나 기다렸지만 진정이 되지 않아, 종내 곡포(曲浦)에 정박해서 겨울을 날 수밖에 없었다. 외딴 항구에서 추위를 가리는 집도 허술했고 허기를 때울 끼니도 거칠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아우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에 그저 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10월에 떠난 길이 기나긴 겨울을 지내고 이듬해 춘삼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국의 땅을 밟았다.

열두 살 어린 아들을 배에 태워 보내면서 "꼭 성공하고 돌아오너라.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결연히 말씀하시던 아버지는 성성한 백발 주름진 얼굴로 금의환향(錦衣還鄕)한 아들을 맞이했다.

"잘했다. 해내고 말았구나. 이제 나라를 위해 힘껏 일하도록 해라."

그러나 조국 신라는 이미 쇠운(衰運)을 맞고 있었다.

春崗
崔根德